

IFRS 도입 이후 기업규모에 따른 재무보고 품질 차이 분석*

유상훈** · 박재환***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인적, 물적자원과 관련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IFRS 도입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회계품질을 개선시켰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Downes et al.(2019)의 모형을 바탕으로 IFRS 도입 이후 Accounting accrual(Accounting estimates ; EST)과 미래 Cash flows와의 연결성이 개선되는 지로 회계품질의 변화를 판단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동안의 대상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기업-연도 표본을 활용하되, IFRS 도입 초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2010년, 2011년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5,922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 등에서 IFRS 도입 이후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와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인적, 물적자원과 관련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IFRS 도입 이후 회계품질 개선의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획일적인 IFRS 적용이 회계 품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회계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비용-효익 측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적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회계품질을 측정 시 적용했던 기존의 가치 관련성 연구 방법론에서 벗어나 IFRS상 재무보고 목적에 보다 적합한 발생액과 미래 현금 흐름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기업규모에 따라 IFRS 도입 효과의 차별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주제어〉 IFRS, 회계품질, 회계추정치, 미래현금흐름, 기업규모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2025년 8월)의 내용을 요약, 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학위논문상후보 신청논문임.

**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ablecpa99@gmail.com, 주저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123@empas.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5년 8월 12일

1차수정일 2025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25년 9월 22일

I. 서 론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의 향상 및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전체 상장기업에 대하여 IFRS를 강제 적용해 오고 있다. IFRS 도입과 적용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재무제표 투명성과 신뢰성의 향상,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자본조달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에서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IFRS를 전면 적용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도입 후 10년 넘게 경과한 시점에서 IFRS 도입과 적용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본과 유사하게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우 소규모 회사가 많아 적절한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상장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12월 기준으로 767개의 상장기업이 자산 1천억원 미만이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자산 1천억 미만의 상장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1,781개 중 약 43%를 차지한다.

IFRS를 먼저 도입한 EU에서의 Armstrong et al.(2010)은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력과 시스템 등을 적절히 갖춘 기업에 한해 IFRS 고품질의 회계기준 적용을 통한 재무보고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응길과 한승수(2020)는 국내 중소-중견 상장기업 회계담당자들의 설문 분석결과에 따르면 IFRS 도입 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비용과 위험이 많이 증가하였고 회계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감사인 및 감독기관과의 갈등 증대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대다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준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IFRS는 다양한 사항에 대한 고려와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원칙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경영자의 추정과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기에,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데이터와 전문가 등 충분한 회계 역량을 갖춘 기업만이 IFRS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상장기업들은 전문가 등 충분한 수준의 회계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내부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한 내재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에 따라 즉 기업규모별로 IFRS 도입 이후 재무보고품질의 개선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IFRS 도입 및 적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IFRS 도입 초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2010년, 2011년은 제외함)을 대상으로 15,922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 기업-연도 표본을 활용하여 Downes et al.(2019)의 모형을 바탕으로 IFRS 도입 이후 Accounting accrual(Accounting estimates ; EST)과 미래 Cash flows와의 연결성이 개선되는 지로 회계품질의 변화를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유형 측면에서 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비중소기업이, 대기업 대 비대기업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비중견중소기업에서 IFRS 도입 이후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와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재무지표 유형 측면에서 매출과 총자산을 평균한 지표, 매출액지표, 총자산지표를 사용하여 추가분석한 것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위 결과는 획일적인 IFRS 적용이 회계 품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회계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비용-효익 측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적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가치 관련성 연구에서 벗어나 IFRS상 재무보고목적에 보다 적합한 발생액과 미래 현금 흐름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IFRS 도입 효과의 차별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1.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는 IFRS 도입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IFRS 도입과 적용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들은 긍정 뿐만 아니라 부정도 혼재되어 왔다.

회계 품질 관련 선행 연구들은 재량적 발생액, 이익 조정, 이익 지속성, 이익 유연화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IFRS 도입 효과를 분석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 감소, 이익 유연화 감소, 실물 및 발생액 이익 조정 감소, 이익 지속성 향상 등 회계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이익 유연화 강도 증가, 발생액 조정 대비 실물 이익 조정 증가, 이익수치의 가치관련성 감소 등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최국현과 손여진(2012)은 K-IFRS 도입 후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조균제(2015)는 IFRS 적용 후 계열사 분석 가능성 감소 및 정보 신뢰성 증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홍규 외(2019)는 K-IFRS 자발적 채택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보다 이익 조정을 덜 시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오현민과 전홍주(2019)는 K-IFRS 도입이 이익 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 분석했다.

그러나 김경순 외(2020)는 IFRS 적용 기간에 상향 및 하향 이익 조정 행태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김경순과 이경진(2020)은 IFRS 도입 후 이익 유연화 강도가 증가하여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했다. 차승민 외(2014)와 유해석 외(2015)는 IFRS 적용 후 실물 이익

조정 및 발생액 조정 모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우재와 최승욱(2019)은 IFRS 도입 후 재량적 발생액 조정은 감소했지만 실물 활동을 통한 이익 조정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증대에 따른 조정 방식 변화로 해석했다. Ipino and Parbonetti(2017)는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 이익조정 방식 사이의 대체관계를 주장하였는데, IFRS 도입 이후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감소가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로 법적제도 장치가 잘 갖춰진 EU 국가들에서만 나타났다. 고상연과 조은영(2014) 및 김효진과 이기훈(2017)은 IFRS 도입 후 이익 지속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위 외에 정보 공시 요구 수준 증대 등을 이유로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IFRS 도입으로 주식 공시량이 증가했으나 이것이 정보 제공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 회계 정보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Burgstahler et al.(2006)은 IFRS 도입으로 인해 주식공시 요구량이 많아졌지만, 많은 양의 공시들이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치가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보고했다.

가치관련성 및 재무분석가들의 의견불일치 관련하여 박종일과 나경아(2015)는 IFRS 도입 전 K-GAAP 하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수치에 비해 IFRS 도입 후 IFRS를 적용했을 때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수치의 가치관련성이 더 낮다고 발표하였고, 백혜원(2016)은 IFRS 도입 이후 개별 재무분석가들은 의견불일치 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선행연구들에서 회계품질, 이익의 질의 측정치로서 사용된 모형의 대표적 예로서 재량적발생액의 측정치로서 수정 Jones 모형(1991)의 재량적발생액 모델로 연도-국가-산업별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잔차(ϵ)와 발생액의 질의 측정치로서 Dechow and Dichev(2002) 모형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잔차(ν)를 측정하고 추정된 잔차를 3년표준편차로 추정한 이익의 질의 측정치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주제별로, IFRS 도입 후 기대되는 효과별로 구분요약 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분류

연구주제	IFRS 도입 후 긍정효과기대	IFRS 도입 후 부정효과기대
재량적 발생액	• 최국현, 손여진(2012) • 조군제(2015)	
이익 조정	• 박홍규 외(2019) • 오현민, 전홍주(2019) • 차승민 외(2014) • 유해석 외(2015)	• 김경순 외(2020)
이익 지속성	• 고상연, 조은영(2014) • 김효진, 이기훈(2017)	
이익 유연화		• 김경순, 이경진(2020)

〈표 1〉 선행연구 분류 (계속)

연구주제	IFRS 도입 후 긍정효과기대	IFRS 도입 후 부정효과기대
회계 정보 가치		• Burgstahler et al.(2006)
가치관련성		• 박종일, 나경아(2015)
의견 불일치		• 백혜원(2016)

2. 가설설정

본 연구는 이전에 선행연구들이 주로 다뤘던 가치관련성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아직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진행되었는데, 회계추정치와 미래현금흐름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가설을 설정하게 된 것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Glendening(2017)은 재무보고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규모,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IASB(2010)에 의하면 기업이 과거의 미래 순현금흐름 창출을 평가할 수 있을 때에 재무성과 보고에 대한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유상훈 외(2024)는 K-IFRS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액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익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력이 IFRS 도입 전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본 연구방법론이 재무보고의 목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유상훈 외 2024, 145).

Downes et al.(2019)은 IFRS 도입 후 발생액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IFRS와 현지 회계 기준의 차이가 큰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IFRS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액과 미래 현금 흐름 간 연관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했으며, 특히 IFRS상 재무보고 목적에 보다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중소기업 등 비교를 통해 기업 규모별 IFRS 도입 효과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기에 발생액 중에서도 경영자의 재량적 주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입될 수 있는 회계추정치와 미래현금흐름과의 관계가 IFRS 도입 전후로 달라지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IFRS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FRS 도입효과를 발휘하려면 국가레벨에서는 국가별 체제, 법적규제 등 시스템적 제도적 요인이 구비되어야 가능해지며, 기업레벨에서도 내부인프라, 내부통제제도, 지배구조, 규모 등이 갖춰져야 가능해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레벨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Hussein and Idlan(2006)는 IFRS를 의무도입한 23개국가들에서 국가별로 고유한 요인들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강력한 투자자보호, 규제,

회계처리기준의 강제 등이 있는 경우에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작게 나타나는 등 강한 제도의 구비 없이 IFRS의 도입만으로 이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Jeanjean and Stolowy(2008)는 IFRS를 의무도입한 호주, 프랑스 및 영국의 IFRS 도입 이후의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여, 회계품질 향상은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경영자의 유인과 국가적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다.

Soderstrom and Sun(2007)은 EU에서 광범위한 IFRS 도입에 따른 회계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회계기준의 품질, 국가의 법률 정치 시스템, 재무보고의 유인 세 가지가 IFRS 도입 후 국가의 회계품질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이라는 사실과 IFRS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회계품질은 국가들의 법률 정치 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국가간 차이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wad and Ibrahim(2023)은 IFRS 도입뿐만 아니라 제도적 요인들과 글로벌 경제적 요인들이 정보투명성과 이라크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기업레벨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김용길과 한승수(2020)는 원칙중심 특성을 지닌 국제회계기준은 거래 관련 경제적 실질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경영자의 재량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인프라가 필요한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회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IFRS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Goodwin and Ahmed(2006)는 호주에서 135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 중, 대규모 기업별로 A-IFRS 도입효과가 차이가 나는 지를 연구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순이익과 자본의 조정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소규모의 기업들에게서 A-IFRS 도입에 따라 중 대규모의 기업들에 비해서 순이익이 변동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A-IFRS의 도입효과가 기업규모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Bansal(2023)은 인도에서 봄베이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익의 질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IFRS 도입의 학습커브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IFRS와 이익의 질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도입초기에 충분한 인프라 지원 등으로 효익이 발생하는 신흥국가들의 소규모 기업들에게서 IFRS가 지속적으로 개선과정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semir and Novotny-Farkas(2018)는 독일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익의 질과 공시관점에서 자발적인 IFRS 도입시의 재무보고품질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에게서 IFRS 도입시점에 이익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IFRS를 도입한 모든 유형의 기업들에게서 재무보고시에 보다 많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외 여러 선행연구들이 IFRS 적용과 관련하여 비용 측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황선필 외(2015) 및 한봉희와 이재경(2017)은 원칙중심기준인 IFRS의 도입으로 인해 회계기준 내용을 해

석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였고, 요구공시량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대와 이로 인한 감사 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관련한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균제(2015)는 IFRS는 원칙 중심이고 기업의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를 강조하며, 공정가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았다. 양해면(2011)은 IFRS에서 요구하는 재무보고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회계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한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하여 회계 프로세스를 갖추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들 중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이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24년 12월 기준 43%의 기업들이 자산규모가 1천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에 따라 IFRS 도입 이후 재무보고품질의 개선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IFRS 도입이 당기 회계 추정치와 미래현금흐름과의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IFRS 도입이 당기 회계추정치와 미래현금흐름과의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혹은 못 갖추었는지가 기업규모와 관련된다는 즉 기업규모와 역량 간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김문태와 최태희(2013년)는 기업규모별 윤리수준과 회계투명성의 관련성을 수정 Jones 모형을 활용하여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측정하였는데, 대규모 기업일수록 윤리지수와 재량적발생액 간의 음의 관계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회계역량의 대응치로서 기업규모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겠다.

Jahmani and Niranjani(2015)은 기업규모와 내부통제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내부통제가 약한 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을 늘리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을 줄이는 경향을 보여 기업규모가 이익조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더 큰 기업들에서 재정적여유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므로 더 좋은 시스템들을 구비하고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게 되고, 이는 바로 회계역량과 직결될 것이라는 사실은 직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실증분석

1.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에 따라 즉 기업규모별로 IFRS 도입 이후 재무보고품질의 개선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Downes et al.(2019)의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연구모형 (1)－발생액(ACC)]

$$\begin{aligned}
 CFO_{i,t+1} = & \beta_0 + \beta_1 CFO_{i,t} + \beta_2 ACC_{i,t} + \beta_3 DA_{i,t} + \beta_4 CAPEX_{i,t} + \beta_5 IFRS \\
 & + \beta_6 S_dummy + \beta_7 IFRS \times S_dummy + IFRS \\
 & \times (\delta_1 CFO_{i,t} + \delta_2 ACC_{i,t} + \delta_3 DA_{i,t} + \delta_4 CAPEX_{i,t}) + S_dummy \\
 & \times (\theta_1 CFO_{i,t} + \theta_2 ACC_{i,t} + \theta_3 DA_{i,t} + \theta_4 CAPEX_{i,t}) + IFRS \\
 & \times S_dummy \times (\lambda_1 CFO_{i,t} + \lambda_2 ACC_{i,t} + \lambda_3 DA_{i,t} + \lambda_4 CAPEX_{i,t}) \\
 & + \beta_8 Big_{i,t} + \beta_9 \Delta GDP_t + \beta_{10} \Delta INF_t + e_{i,t}
 \end{aligned} \tag{1}$$

[연구모형 (2)－회계추정치(EST)]

$$\begin{aligned}
 CFO_{i,t+1} = & \beta_0 + \beta_1 CFO_{i,t} + \beta_2 \Delta MWC_{i,t} + \beta_3 EST_{i,t} + \beta_4 DA_{i,t} + \beta_5 CAPEX_{i,t} \\
 & + \beta_6 IFRS + \beta_7 S_dummy + \beta_8 IFRS \times S_dummy + IFRS \\
 & \times (\delta_1 CFO_{i,t} + \delta_2 \Delta MWC_{i,t} + \delta_3 EST_{i,t} + \delta_4 DA_{i,t} + \delta_5 CAPEX_{i,t}) \\
 & + S_dummy \times (\theta_1 CFO_{i,t} + \theta_2 \Delta MWC_{i,t} + \theta_3 EST_{i,t} + \theta_4 DA_{i,t} \\
 & + \theta_5 CAPEX_{i,t}) + IFRS \times S_dummy \times (\lambda_1 CFO_{i,t} + \lambda_2 \Delta MWC_{i,t} \\
 & + \lambda_3 EST_{i,t} + \lambda_4 DA_{i,t} + \lambda_5 CAPEX_{i,t}) + \beta_9 Big_{i,t} + \beta_{10} \Delta GDP_t \\
 & + \beta_{11} \Delta INF_t + e_{i,t}
 \end{aligned} \tag{2}$$

연구모형 (1)은 당기순이익(NI)을 영업현금흐름(CFO)과 발생액(ACC)으로 나누고, 이를 IFRS 도입 더미변수 및 기업특성 판단 proxy 더미변수와 교차한 후 다음 회계기간의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모형이다. IFRS 도입 이후 발생액의 질이 향상되었다면 IFRS×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된다.

위의 발생액총액(ACC)은 운전자본 발생액의 변동(ΔWC)과 기타(OTHER)로 구분한다.

$$NI_{i,t} = CFO_{i,t} + \Delta WC_{i,t} + OTHER_{i,t}$$

운전자본 발생액의 변동(ΔWC) 중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매출채권(대손에 대한 추정)과 재고자산(재고자산 평가)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는데 이를 위해 ΔWC 에서 ΔAR 과 ΔINV 를 차감하여 수정된(Modified) 운전자본 발생액의 변동(ΔMWC)로 새로 정의하고, $(\Delta AR + \Delta INV + OTHER)$ 를 EST 라는 새로운 변수로 정의한다.

$$NI_{i,t} = CFO_{i,t} + (\Delta WC_{i,t} + \Delta AR_{i,t} - \Delta INV_{i,t}) + \Delta AR_{i,t} + \Delta INV_{i,t} + OTHER_{i,t}$$

$$NI_{i,t} = CFO_{i,t} + \Delta MWC_{i,t} + EST_{i,t}$$

연구모형 (2)는 발생액(ACC) 중 경영자의 추정 등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 항목인 매출채권의 변화와 재고자산의 변화를 구분하여 추정항목으로 구분하여 회계추정치(EST)라는 변수를 구성 후 이를 IFRS 도입 더미변수 및 기업특성 판단 proxy 더미변수와 교차한 후 다음 회계기간의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모형이다.

IFRS 도입 이후 경영자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했다면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미래 현금흐름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 $IFRS \times EST$ 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된다. 반대로, 경영자가 재량권을 기회적으로 사용한다면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미래 현금흐름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 $IFRS \times EST$ 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수로 예측된다.

연구모형 (1)과 (2)가 본 연구의 메인 모형으로 모형 (1)에서 주관심변수는 λ_2 가 되며, 모형 (2)에서 주관심변수는 λ_3 가 된다.

[연구모형 (3)－세부계정과목]

$$\begin{aligned} CFO_{i,t+1} = & \beta_0 + \beta_1 CFO_{i,t} + \beta_2 \Delta MWC_{i,t} + \beta_3 \Delta AR_{i,t} + \beta_4 \Delta INV_{i,t} + \beta_5 DEP_FA_{i,t} \\ & + \beta_6 AMT_IA_{i,t} + \beta_7 GWIMP_{i,t} + \beta_8 MISC_{i,t} + \beta_9 DA_{i,t} + \beta_{10} CAPEX_{i,t} \\ & + \beta_{11} IFRS + \beta_{12} S_dummy + \beta_{13} IFRS \times S_dummy + IFRS \\ & \times (\delta_1 CFO_{i,t} + \delta_2 \Delta MWC_{i,t} + \delta_3 \Delta AR_{i,t} + \delta_4 \Delta INV_{i,t} + \delta_5 DEP_FA_{i,t} \\ & + \delta_6 AMT_IA_{i,t} + \delta_7 GWIMP_{i,t} + \delta_8 MISC_{i,t} + \delta_9 DA_{i,t} + \delta_{10} CAPEX_{i,t}) \\ & + S_dummy \times (\theta_1 CFO_{i,t} + \theta_2 \Delta MWC_{i,t} + \theta_3 \Delta AR_{i,t} + \theta_4 \Delta INV_{i,t} \\ & + \theta_5 DEP_FA_{i,t} + \theta_6 AMT_IA_{i,t} + \theta_7 GWIMP_{i,t} + \theta_8 MISC_{i,t} + \theta_9 DA_{i,t} \\ & + \theta_{10} CAPEX_{i,t}) + IFRS \times S_dummy \times (\lambda_1 CFO_{i,t} + \lambda_2 \Delta MWC_{i,t} \\ & + \lambda_3 \Delta AR_{i,t} + \lambda_4 \Delta INV_{i,t} + \lambda_5 DEP_FA_{i,t} + \lambda_6 AMT_IA_{i,t} \\ & + \lambda_7 GWIMP_{i,t} + \lambda_8 MISC_{i,t} + \lambda_9 DA_{i,t} + \lambda_{10} CAPEX_{i,t}) \\ & + \beta_{14} Big_{i,t} + \beta_{15} \Delta GDP_t + \beta_{16} \Delta INF_t + e_{i,t} \end{aligned} \quad (3)$$

연구모형 (3)은 추가분석을 위한 모형으로 상기 회계추정치(EST) 변수를 매출채권의 변동(ΔAR), 재고자산의 변동(ΔINV), 감가상각비(DEP_FA), 무형자산 상각비(AMT_IA), 영업권 손상차손(GWIMP), 기타(MISC)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IFRS 도입 더미변수 및 기업특성 판단 proxy 더미변수와 교차한 후 다음 회계기간의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모형이다.

연구모형 (3)에서 주관심 변수는 $\lambda_3, \lambda_4, \lambda_5, \lambda_6, \lambda_7, \lambda_8$ 이 된다.

연구모형 (1), (2), (3)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 재무변수는 기초 & 기말 총자산의 평균으로 나눈다.

<표 2>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와 그 정의

변 수	정 의
CFO_{t+1}	차기 영업현금흐름
CFO_t	영업현금흐름,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NI	당기순이익, (계속사업이익)
ACC	발생액, (NI - CFO)
ΔWC	운전자본 발생액의 변동
ΔMWC	수정된 운전자본 발생액의 변동, ($\Delta WC - \Delta AR - \Delta INV$)
OTHER	비운전자본 발생액, ($ACC - \Delta WC$)
EST	회계추정치, ($\Delta AR + \Delta INV + OTHER$)
CAPEX	자본적 지출, 현금흐름표 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IFRS	IFRS 도입 더미변수, IFRS 도입 이후인 경우 1, 아니면 0
S_dummy	기업규모에 대한 더미변수 (small(중소기업 1, 비중소기업 0), nonlarge(비대기업 1, 대기업 0), sme(중견중소기업 1, 비중견중소기업 0), 매출과 총자산 평균 분위(5, 4, 3, 2)별 표본 중 큰 것 0, 작은 것 1, 매출액 분위(5, 4, 3, 2)별 표본 중 큰 것 0, 작은 것 1, 총자산 분위(5, 4, 3, 2)별 표본 중 큰 것 0, 작은 것 1)
ΔAR	매출채권의 변동
ΔINV	재고자산의 변동
DEP_FA	감가상각비
AMT_IA	무형자산 상각비
GWIMP	영업권 손상차손
MISC	기타 회계추정치
Big	감사인이 대형법인인 경우 1, 아니면 0
ΔGDP	국내총생산 변화율
ΔINF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기업규모별로 차별적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규모별 분석지표로 ① 기업 유형(A)별로 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대기업 대 비대기업, 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분석에서 ② 재무지표 유형(B)별로 매출액과 총자산을 평균한 지표와 매출액지표, 총자산지표 재무지표들과 관련하여 각 지표별로 2분위 표본들 중 큰 것과 작은 것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특성에 대한 판단 proxy 별로 큰 것을 더미변수 0으로, 작은 것을 더미변수 1로 분석하였다. 이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본 연구의 메인 모형인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를 위 지표별로 분석하였다. 추가분석 모형인 연구모형 (3)도 위 지표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3 way 교차모형을 사용하였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여부는 2015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5천억 미만), 매출액(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일정규모 이하), 독립성기준으로 판단하였고, 2015년 이후부터 매출액단일 기준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내용에 근거하여 매출과 총자산을 평균한 지표와 매출액지표, 추가로 총자산지표를 분석지표로 사용하였다.

2. 실증분석결과

가. 표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데이터는 TS2000에서 수집하였고, 필요한 거시경제 변수들은 모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금융업을 제외하고 12월 결산인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IFRS 도입 초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2010년, 2011년은 제외하였다. 이는 IFRS의 도입이 2011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2011년 기초잔액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재무제표가 비교식으로 공시되는 특성때문에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였다. IFRS 도입 이후 개별(별도) 재무제표가 아닌 계열사 간 내부거래 손익 등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었으므로, IFRS 도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없는 관측치를 제거하고, 모든 변수들에 대해 양 극단 1%에 해당하는 관측치들을 모두 제거한 결과 최종 15,922개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 선정 과정은 <표 3>에 요약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인 Downes et al.(2019)와 동일하게 산업 고정 효과(Industry fixed effect)를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 표본 선정 과정

구분	관측치 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KOSPI 또는 KOSDAQ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28,004
제외 : 분석에 필요한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관측치	(6,948)
제외 : 2010년 또는 2011년에 해당하는 관측치	(1,543)
제외 : 각 변수에 대한 양 극단 1% 관측치	(3,591)
최종 표본	15,922

한국표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는 아래 <표 4>~<표 6>과 같다.

종속변수인 영업현금흐름(CFO)의 평균값과 중앙값이 모두 약 0.05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선행연구인 Downes et al.(2019)의 결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정된 운전자본 발생액의 변동(ΔMWC) 관련한 평균값과 중앙값은 0보다 약간 작은 값을 보이고 있고, 매출채권의 변동(ΔAR) 및 재고자산의 변동(ΔINV)과 관련한 평균값과 중앙값은 0보다 약간 크거나 0과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타 항목(MISC) 관련한 평균값과 중앙값은 0보다 약간 작은 값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선행연구인 Downes et al.(2019)와 결과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본적 지출(CAPEX) 관련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각 0.2117, 0.1388으로 선행연구인 Downes et al.(2019)의 결과값인 0.05, 0.034에 비해 상당히 큰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감가상각비 관련한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각 0.0057와 0.0034로, 선행연구인 Downes et al.(2019)의 결과값인 0.035와 0.029에 비해 많이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해 한국의 경우 대체로 투자활동 관련 현금유출이 많고, 총자산 대비 감가상각비 금액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경제 관련 변수들인 GDP변화율(ΔGDP)과 물가상승률(ΔINF) 관련한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각 0.0471, 0.0499, 0.0173, 0.0148을 보이고 있어 선행연구인 Downes et al.(2019)에서 나타난 1.213, 1.800, 0.181, 0.200에 비해 많이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거시경제 특성상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표본 특성상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Big 변수의 평균값이 0.5261로, 전체 표본에서 감사인이 대형 회계법인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약 53%이며, IFRS 변수의 평균값은 0.7765로 약 78%의 표본이 IFRS 도입 이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IFRS 도입 전후로 동일하게 10개년도씩을 분석 기간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FRS 도입 이후 표본개수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연결재무제표에서 나온 재무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IFRS 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지만 K-GAAP 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영업현금흐름(CFO_t)과 당기순이익(NI) 모두 차기

영업현금흐름(CFO_{t+1})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0.430, 0.390)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NI)도 영업현금흐름(CFO_t)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0.543)를 보이고 있다. 발생액(ACC)과 회계추정치(EST)는 모두 영업현금흐름(CFO_t)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0.492, -0.281)를 보이고 있고, 매출채권의 변동(ΔAR)과 재고자산의 변동(ΔINV) 모두 영업현금흐름(CFO_t)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0.114, -0.13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술통계량

	count	mean	sd	p5	p25	p50	p75	p95
CFO_{t+1}	15,922	0.0467	0.0771	-0.0842	0.0041	0.0485	0.0925	0.1719
CFO_t	15,922	0.0503	0.0763	-0.0760	0.0072	0.0507	0.0959	0.1768
NI	15,922	0.0141	0.0750	-0.1248	0.0000	0.0165	0.0529	0.1216
ACC	15,922	-0.0362	0.0723	-0.1592	-0.0737	-0.0325	0.0051	0.0767
DA	15,922	0.0053	0.0820	-0.1186	-0.0338	0.0060	0.0453	0.1245
ΔWC	15,922	-0.0067	0.0877	-0.1586	-0.0475	-0.0026	0.0386	0.1276
ΔMWC	15,922	-0.0193	0.0994	-0.1931	-0.0667	-0.0135	0.0312	0.1361
EST	15,922	-0.0169	0.1226	-0.2184	-0.0841	-0.0184	0.0481	0.1954
CAPEX	15,922	0.2117	0.2172	0.0248	0.0716	0.1388	0.2665	0.6602
ΔAR	15,922	0.0058	0.0481	-0.0703	-0.0152	0.0035	0.0266	0.0858
ΔINV	15,922	0.0068	0.0341	-0.0450	-0.0069	0.0022	0.0197	0.0671
DEP_FA	15,922	0.0057	0.0072	0.0005	0.0017	0.0034	0.0067	0.0184
AMT_IA	15,922	0.0023	0.0041	0.0000	0.0001	0.0008	0.0025	0.0105
GWIMP	15,922	0.0001	0.0005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MISC	15,922	-0.0376	0.0974	-0.2003	-0.0866	-0.0349	0.0112	0.1197
Big	15,922	0.5261	0.4993	0.0000	0.0000	1.0000	1.0000	1.0000
IFRS	15,922	0.7765	0.4166	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ΔGDP	15,922	0.0471	0.0226	0.0084	0.0340	0.0499	0.0608	0.0849
ΔINF	15,922	0.0173	0.0105	0.0038	0.0097	0.0148	0.0250	0.0359

〈표 5〉 변수 간의 상관관계 1

	CFO _{t+1}	CFO _t	NI	ACC	DA	ΔWC	ΔMWC	EST	CAPEX
CFO _{t+1}	1								
CFO _t	0.430***	1							
NI	0.390***	0.543***	1						
ACC	-0.0492***	-0.492***	0.463***	1					
DA	-0.0217***	-0.414***	0.387***	0.838***	1				
ΔWC	0.0646***	-0.127***	0.144***	0.283***	0.283***	1			
ΔMWC	0.00186	-0.0116	-0.00685	0.00512	0.0139*	0.771***	1		
EST	-0.0305***	-0.281***	0.279***	0.586***	0.483***	-0.458***	-0.808***	1	
CAPEX	-0.000677	0.0578***	0.0411***	-0.0184**	-0.00270	-0.0770***	-0.0914***	0.0632***	1
ΔAR	0.0926***	-0.114***	0.170***	0.297***	0.284***	0.162***	-0.409***	0.507***	0.0294***
ΔINV	0.0302***	-0.131***	0.151***	0.295***	0.286***	0.0968***	-0.354***	0.461***	0.0268***
DEP_FA	0.0664***	0.0688***	-0.0191**	-0.0925***	-0.0722***	-0.0316***	-0.0207***	-0.0377***	0.0378***
AMT_IA	0.0102	-0.00327	-0.0939***	-0.0940***	-0.1000***	-0.0381***	-0.0366***	-0.0257***	0.0830***
GWIMP	0.00275	0.0104	0.0136*	0.00316	-0.00404	-0.00512	-0.000764	0.00248	0.00118
MISC	-0.100***	-0.256***	0.219***	0.498***	0.377***	-0.686***	-0.687***	0.851***	0.0493***
Big	0.116***	0.105***	0.110***	0.00317	-0.00837	0.00690	-0.0123	0.0119	-0.0807***
IFRS	-0.0528***	-0.0579***	0.0360***	0.0984***	0.0133*	0.0121	0.0642***	0.00604	-0.0551***
ΔGDP	0.00766	0.0141*	0.0184**	0.00422	0.0527***	0.0232***	-0.0569***	0.0486***	0.0214***
ΔINF	0.0273***	0.00218	-0.0114	-0.0141*	0.0358***	-0.00659	-0.0899***	0.0646***	0.0425***

* $p < 0.1$, ** $p < 0.05$, *** $p < 0.01$

〈표 6〉 변수 간의 상관관계 2

	ΔAR	ΔINV	DEP_FA	AMT_IA	GWIMP	MISC	Big	IFRS	ΔGDP	ΔINF
ΔAR	1									
ΔINV	0.199***	1								
DEP_FA	-0.00369	-0.0157**	1							
AMT_IA	0.00875	-0.00352	0.169***	1						
GWIMP	-0.00617	-0.00225	-0.00550	-0.0121	1					
MISC	0.0740***	0.133***	-0.121***	-0.0903***	0.00274	1				
Big	0.0329***	0.00725	0.0216***	-0.00954	-0.0133*	-0.00499	1			
IFRS	-0.0877***	-0.0322***	0.0283***	-0.0555***	0.00878	0.0624***	-0.0926***	1		
ΔGDP	0.0897***	0.0988***	-0.0614***	0.0164**	-0.00170	-0.0139*	0.0496***	-0.497***	1	
ΔINF	0.0859***	0.124***	-0.0361***	0.0446***	-0.00505	-0.00371	0.0677***	-0.731***	0.667***	1

* $p < 0.1$, ** $p < 0.05$, *** $p < 0.01$

나. 실증분석 결과

(1) 기업 유형(A)별 분석

기업 유형(A)별로 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대기업 대 비대기업, 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실증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분석

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분석 관련해서 연구모형 (1)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는 발생액으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 차이를 보여준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없는 0인 경우 ACC의 계수가 -0.0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가 IFRS×ACC의 계수가 0.2555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발생액(ACC)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발생액(ACC)과 차기 영업현금흐름과의 관련성이 IFRS 도입 이후 높아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1인 경우 small×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었다가 IFRS×small×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표 7> 발생액으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차이-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1)
	CFO _{t+1}
CFO _t	0.4034*** (12.42)
ACC	-0.027 (-0.74)
IFRS×ACC	0.2555*** (6.03)
small×ACC	0.1180* (1.78)
IFRS×small×ACC	-0.0789 (-0.97)
Intercept	0.0340*** (9.73)
N	15,925
R ²	0.208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분석 관련해서 연구모형 (2)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는 회계추정치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 차이를 보여준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없는 0인 경우 EST의 계수가 -0.028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가 IFRS $\times$ EST의 계수가 0.2578 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었는데, IFRS 도입 이후 경영자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추정치(EST)와 차기 영업현금흐름간의 관련성이 IFRS 도입 이후 높아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1인 경우 small $\times$ EST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었다가 IFRS $\times$ small $\times$ EST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비중소기업의 경우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회계추정치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차이-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1)
	CFO _{t+1}
CFO _t	0.4013*** (12.35)
EST	-0.0284 (-0.78)
IFRS $\times$ EST	0.2578*** (6.08)
small $\times$ EST	0.1212* (1.83)
IFRS $\times$ small $\times$ EST	-0.0827 (-1.01)
Intercept	0.0343*** (9.80)
N	15,925
R ²	0.208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비중소기업에서는 IFRS 도입이후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와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나) 대기업 대 비대기업 분석

대기업 대 비대기업 분석 관련해서 연구모형 (1)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는 발생액으로 측정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 차이를 보여준다.

대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없는 0인 경우 ACC의 계수가 -0.04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가 IFRS×ACC의 계수가 0.2341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발생액(ACC)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발생액(ACC)과 차기 영업현금흐름과의 관련성이 IFRS 도입 이후 높아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1인 경우 nonlarge×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가 IFRS×nonlarge×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표 9> 발생액으로 측정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차이-대기업 대 비대기업

	(1)
	CFO _{t+1}
CFO _t	0.5066*** (8.23)
ACC	-0.0448 (-0.62)
IFRS×ACC	0.2341** (2.40)
nonlarge×ACC	0.0859 (1.09)
IFRS×nonlarge×ACC	-0.0137 (-0.13)
Intercept	0.0239*** (3.96)
N	15,925
R ²	0.2059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대기업 대 비대기업 분석 관련해서 연구모형 (2)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이는 회계 추정치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 차이를 보여준다.

대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없는 0인 경우 EST의 계수가 -0.038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IFRS $\times$ EST의 계수가 0.2373 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었는데, IFRS 도입 이후 경영자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추정치(EST)와 차기 영업현금흐름간의 관련성이 IFRS 도입 이후 높아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1인 경우 nonlarge $\times$ EST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IFRS $\times$ nonlarge $\times$ EST의 계수역시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대기업의 경우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회계추정치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차이-대기업 대 비대기업

	(1)
	CFO _{t+1}
CFO _t	0.5080*** (8.25)
EST	-0.0382 (-0.53)
IFRS $\times$ EST	0.2373** (2.42)
nonlarge $\times$ EST	0.0778 (0.98)
IFRS $\times$ nonlarge $\times$ EST	-0.0153 (-0.15)
Intercept	0.0254*** (4.16)
N	15,925
R ²	0.206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대기업에서 IFRS 도입이후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와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다) 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분석

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분석 관련해서 연구모형 (1)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는 발생액으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 차이를 보여준다.

비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없는 0인 경우 ACC의 계수가 0.01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가 IFRS×ACC의 계수가 0.1886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발생액(ACC)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발생액(ACC)과 차기 영업현금흐름과의 관련성이 IFRS 도입 이후 높아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1인 경우 sme×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IFRS×sme×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표 11> 발생액으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차이—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1)
	CFO _{t+1}
CFO _t	0.4740*** (8.86)
ACC	0.0189 (0.34)
IFRS×ACC	0.1886** (2.25)
sme×ACC	0.0174 (0.26)
IFRS×sme×ACC	0.0378 (-0.40)
Intercept	0.0374*** (9.01)
N	15,925
R ²	0.2081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분석 관련해서 연구모형 (2)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는 회계추정치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 차이를 보여준다.

비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없는 0인 경우 EST의 계수가 0.02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가 IFRS×EST의 계수가 0.1878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었는데, IFRS 도입 이후 경영자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추정치(EST)와 차기 영업현금흐름간의 관련성이 IFRS 도입 이후 높아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더미변수가 1인 경우 sme×EST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IFRS×sme×EST의 계수역시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비중견중소기업의 경우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회계추정치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회계품질차이—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1)
	CFO _{t+1}
CFO _t	0.4790*** (8.95)
EST	0.0237 (0.42)
IFRS×EST	0.1878** (2.23)
sme×EST	0.0133 (0.20)
IFRS×sme×EST	0.0383 (0.41)
Intercept	0.0378*** (9.09)
N	15,925
R ²	0.2083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비중견중소 기업에서 IFRS 도입이후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와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2) 추가 분석 : 재무지표 유형(B)별 분석

(가) 매출과 총자산을 평균한 지표, 매출액지표, 총자산지표 사용한 분석

별도로 분석결과 테이블을 신지는 않았지만, 재무지표 유형(B)별로 매출과 총자산 평균한 지표, 매출액지표, 총자산지표 등과 관련하여 각 지표별로 2분위 표본들 중 큰 것 대 작은 것들 대응치로 사용하여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실증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제대로 갖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더미변수가 없는 0인 경우 즉 큰 것에서는 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IFRS×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어 발생액(ACC)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ST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IFRS×EST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예측되어 IFRS 도입이후 경영자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예측력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즉 회계추정치(EST)와 차기영업 현금흐름간의 관련성이 높아져 IFRS 도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하여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더미변수가 1인 경우 즉 작은 것에서는 small×ACC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IFRS×small×ACC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small×EST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IFRS×small×EST의 계수역시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IFRS 채택 이후 발생액의 질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력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즉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제대로 갖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더미변수가 없는 0인 경우 즉 큰 것에서 IFRS 도입 이후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와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¹⁾

1) 추가분석으로 연구모형 (3)을 이용한 세부계정과목 분석 검증결과는 참고내용으로 지면관계상 별도로 신지 않았다.

분석대상 기간에서 제외기간을 2010년과 2011년이 아닌 조기도입 가능기간인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실행한 분석에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IV. 결 론

회계투명성 향상과 글로벌기업과의 비교가능성 제고 목적으로 2011년에 IFRS를 전면 도입한 지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IFRS 도입 이후 회계품질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는 등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회계품질의 측정치 별로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IFRS를 도입하기 이전인 2000년에서 2009년과 도입 이후인 2012년부터 2021년과의 현금흐름 예측력을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Downes et al.(2019)가 사용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IFRS 도입 이후 재무보고품질의 차별적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즉 IFRS 도입이 당기 회계추정치와 미래현금흐름과의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가치관련성 측면에서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평가한 반면, 본 연구는 재무제표 발생액의 현금흐름 예측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K-IFRS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의하면 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액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익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력이 IFRS 도입 전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본 연구방법론이 재무보고의 목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 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로 경영자의 추정과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고, 그렇기에 충분한 회계 역량을 갖춘 기업만이 IFRS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혹은 못 갖추었는지가 기업규모와 관련된다는 가정하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별적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① 기업 유형(A)별로 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대기업 대 비대기업, 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분석에서 ② 재무지표 유형(B)별로 매출액과 총자산을 평균한 지표와 매출액지표, 총자산지표 재무지표들과 관련하여 각 지표별로 2분위 표본들 중 큰 것, 작은 것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특성에 대한 판단 대응치로 큰 것을 더미변수 0으로, 작은 것을 더미변수 1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비중소기업이, 대기업 대 비대기업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비중견중소기업 대 중견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비중견중소기업에서 IFRS 도입 이후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와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추가분석에서 매출과 총자산을 평균한 지표, 매출액지표, 총자산지표를 사용하여 2분위 표본들을 만든 후 큰 것, 작은 것을 대응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

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제대로 갖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더미변수가 없는 0인 경우, 즉 큰 것에서 IFRS 도입 이후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와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박재환 외(2024)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IFRS 도입 및 적용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상장기업 설문조사 결과에서, IFRS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 회계 관련 임직원 역량 증대 관하여 긍정적답변(54.9%)을 보였으나, 자본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감소(33.5%), 회계처리관련 회사의 재량권증대(34.1%) 및 자본조달비용의 감소(16.1%)의 항목 등에서는 낮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반면에 IFRS 도입의 부정적 효과로서 IFRS 적용과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지속적 비용발생(85.6%)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전문가 의존성 심화(77.5%),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불일치 증가(57.5%) 및 공시량 증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자의 애로사항 증가(83.9%) 등 항목별로 높은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 도입의 효익과 비용을 묻는 설문에는 비용이 더 크다는 답변(59.7%)이 더 많았으며, 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상장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70.8%)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기간 IFRS 적용을 유예(47.3%)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하여 IFRS를 선택 적용하는 방안(56.6%)이 제시되었다(박재환 외 2024, 94).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규모 중소 및 중견기업 등의 IFRS 적용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며 IFRS 적용이 곧 재무 보고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역량이 열위한 소규모기업 들에게는 비용 대 효익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위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일정기간 IFRS 적용 유예나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하여 IFRS를 선택 적용하는 방안 등의 차별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IFRS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액과 미래 현금흐름 간 연관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했는데, 기존의 가치 관련성 연구에서 벗어나 IFRS상 재무보고목적에 보다 적합한 발생액과 미래 현금 흐름 간의 연관성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중소기업 등 비교를 통해 기업 규모별 IFRS 도입 효과 차이를 분석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IFRS 도입 이후 재무보고품질의 개선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한 것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고상연 · 조은영. 20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7집 : 59-75.
- 김경순 · 이경진. 2020. “IFRS 의무채택이 이익유연화에 미치는 효과”. 회계학연구 제45권 제1호 : 1-38.
- 김경순 · 이진환 · 이경진. 2020. “한국에서 원칙중심 IFRS의 채택은 이익조정행태를 감소시키는가? : 발생액 결정요인 모형을 이용한 시계별비교”. 회계학연구 제45권 제2호 : 173-214.
- 김문태 · 최태희. 2013. “기업규모별 윤리수준과 회계투명성의 관련성”. 국제회계연구 제52집 : 77-100.
- 김응길 · 한승수. 2020.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중소 - 중견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42권 제1호 : 1-22.
- 김효진 · 이기훈. 2017. “IFRS 도입 전후 회계이익정보의 지속성 변화”. 국제회계연구 제73집 : 127-150.
- 박재환. 2024.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기업지배기구 insights 5호. 한국딜로이트 : 21-29.
- 박재환 · 송창준 · 김현욱 · 유상훈 · 전홍준 · 이상윤. 2024. “한국과 일본의 IFRS 도입 및 적용 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 1-143.
- 박종일 · 나경아. 2015. “IFRS 전후기간에서 영업이익의 상대적 가치관련성 비교”. 경영학연구 제44권 제3호 : 801-836.
- 박홍규 · 이유선 · 전규안. 2019.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K-GAAP 적용기업과 K-IFRS 선택기업의 비교”. 세무와 회계저널 제20권 제4호 : 49-80.
- 백혜원. 2016.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이후 개별 재무분석가의 정보 환경이 이익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5권 제5호 : 1671-1695.
- 양해면. 2011. “K-IFRS 적용기업의 계정과목과 주식사항 변동”. 국제회계연구 제51집 : 189-210.
- 오현민 · 전홍주. 2019. “K-IFRS 도입이 재무분석가수와 실제이익조정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7권 제3호 : 185-216.
- 유상훈 · 박재환 · 이상윤. 2024.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117집 : 135-167.
- 유해석 · 김용수 · 전규안. 2015.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기업특성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2호 : 85-130.
- 이우재 · 최승욱. 2019. “K-IFRS의 도입은 과연 이익의 품질을 제고하였는가? 발생액과 실물활동 이익조정의 상충관계에 대한 실증조사 및 K-IFRS 제1115호에 대한 제언”. 한국회계

- 학회 : 1-33.
- 조군제. 2015.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평가와 정착방안”.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 1305-1329.
- 차승민 · 문보영 · 전홍민. 2014. “K-IFRS의 도입이 경영자의 실물적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15권 제6호 : 55-81.
- 최국현 · 손여진. 2012. “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항목, 재무비율 및 발생액의 변화”. 회계저널 제21권 제4호 : 209-256.
- 한봉희 · 이재경. 2017. “IFRS 도입이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와 자본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 자본 국제화 실무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6권 제4호 : 129-163.
- 황선필 · 김경호 · 윤재원. 2015. “K-IFRS 도입 후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량의 변화”.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12호 : 3323-3358.
- Armstrong, C. S., W. R. Guay, and J. P. Weber. 2010. The role of information and financial reporting in corporate governance and debt contrac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79-234.
- Awad, S. S., and M. A. Ibrahim. 2023. The impact of IFRS adoption, institutional factors, and global economic factors on economic performance : Mediating the role of informa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eBusiness and eGovernment Studies* 15(3) : 105-119.
- Bansal, M. 2023. IFRS diffusion and earnings quality : Moderating role of firm size and IFRS specialists. *Corporate Accounting & Finance* 34(3) : 222-236.
- Bassemir, M., and Z. Novotny-Farkas. 2018. IFRS adoption, reporting incentive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private firm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45(7-8) : 759-796.
- Burgstahler, D. C., Hail, L., and C. Leuz. 2006. The Importance of Reporting Incentives : Earnings Management in European Private and Public Firms. *The Accounting Review* 81(5) : 983-1016.
- Dechow, P. M., and I. D. Dichev.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 : 35-59.
- Downes, J. F., Kang, T., Kim, S., and C. Lee. 2019. Does the mandatory adoption of IFRS improve the association between accruals and cash flows? Evidence from accounting estimates. *Accounting Horizons* 33(1) : 39-59.
- Glendening, M. 2017. Critical accounting estimate disclosures and the predictive value of earnings. *Accounting Horizons* 31(1) : 1-2.
- Goodwin, J., and K. Ahmed. 2006. The impac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Does size matter?.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1(5) : 460-475.

- Hussein, H., and Z. Idlan. 2006. Mandatory IFRS Adoption and Earnings Quality : The Impact of Country-Specific Factors.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2015 : 1 – 48.
- Ipino, E., and A. Parbonetti. 2017. Mandatory IFRS adoption : the trade-off between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47 : 91 – 121.
- Jahmani, Y., and S. Niranjana. 2015. Earnings Management, Weak Internal Controls, And Firm Size. *Accounting & Taxation* : 51 – 64.
- Jeanjean, T., and H. Stolowy. 2008. Do accounting standards matter? An exploratory analysis of earnings management before and after IFRS adop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7(6) : 480 – 494.
- Jones,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 193 – 228.
- Soderstrom, N. S., and K. J. Sun. 2007. IFRS Adoption and Accounting Quality : A Review. *European Accounting Review* 16 : 675 – 702.

How Firm Size Affect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fter IFRS Adoption

Yu, sangwhun* · Park, jaehwan**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whether the adoption of IFRS has differentially improved accounting quality depending on firm size, under the premise that larger firms possess relatively greater capabilities associated with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Based on the model of Downes et al.(2019),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by analyzing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accruals (accounting estimates ; EST) and future cash flows has improved after the adoption of IFRS.

For this purpose, a sample of 15,922 firm-year observations from KOSPI and KOSDAQ-listed companies over the period 2000 to 2021 is used, excluding the years 2010 and 2011 to control for the initial effects of IFRS adoption.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impact of IFRS adop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estimates and future cash flows differs by firm size. Large firms with relatively greater resources experienced a more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estimates and future cash flows following IFRS ado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uniform application of IFR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improvements in accounting quality. They also highligh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policy considerations for smaller firms with relatively limited accounting cap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cost-benefit aspec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moving beyond traditional value relevance approaches to measuring accounting quality and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accruals and future cash flows—more closely aligned with the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under IFRS—to reveal differential effects of IFRS adoption based on firm size.

〈Key words〉 IFRS, Accounting quality, Accounting estimates, Future cash flows, Firm size

* Ph.D. for Accounting, Chung Ang University, ablecpa99@gmail.com, First Author

** Professor For Business, Chung Ang University, jaypark123@empas.com, Corresponding Author